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벤처산업을 조금 더 자세히 정의한다면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사업화하여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벤처 비즈니스와 높은 위험을 알고서도 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조 남 훈 / LG창업투자 책임심사역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의 관계

최근 우리 경제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구조조정과 벤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벤처산업 활성화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맞물리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구조조정과 벤처산업 활성화는 우리가 잡아야 할 또다른 두마리의 토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벤처란 용어가 정확한 개념 정립없이 너무 남발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또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관계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로서 새롭게 정립이 되었으면 한다.

일반적으로 벤처산업(Venture Industry)이라고 하면 벤처기업(Venture Business or High-tech Company)과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의 관계와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벤처산업이란 축의 양쪽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축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중후장대형의 산업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진행중인 구조조정도 이러한 두 축의 균형있는 성장이란 측면에서 파악해 볼수도 있을 것이다. 벤처산업을 조금 더 자세히 정의한다면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사업화하여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벤처 비즈니스와 높은 위험을 알고서도 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의 문헌상 첫 사례로 흔히 콜럼버스와 그를 지원한 스페인 이사벨여왕의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들 사이의 계약 내용이 충분히 벤처산업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즉 서로 위험을 감수 하면서도 성공할 경우에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연결고리는 바로 많은 수익에 대한 기대인 것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양자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높은 위험이 존재할 것이다. 예를들어 최초로 기술을 상업화 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 시장에 대한 정보부재로 인한 마케팅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는 것이다. High-risk High-return이란 압축된 말이 벤처산업을 대변해 준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벤처성 사업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벤처 캐피탈도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실리콘밸리식으로 정의한다면 자금, 조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이 나 아이디어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둘째, 국내법적으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해당기업이 될 것이다. 셋째, 조직문화란 측면에서 본다면 유연성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연성이라 함은 의사결정의 유연성, 조직구성/규모의 유연성,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성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유연성은 벤처기업이 지녀야 할 중요한 속성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넷째, 재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직원에 대한 보상은 주로 스톡옵션으로 이루어지며 고급인력의 자발적 유입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업공개나 M&A를 목표로 경영을 한다는 것이다. 회사를 하나의 상품개념으로 파악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일반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차이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 모두 맞는 벤처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출발은 벤처기업이었지만 조만간 대기업을 흉내내거나 대표1인이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 전

락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부분은 벤처기업의 잘못도 있지만 부도난 대기업에서는 모두 비자금 장부가 나오는 사업환경하에서 우리 모두 반성해 보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어려운 주문이지만 벤처기업이야말로 말로 이러한 과거의 구태를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환경은 미국의 실리콘 벨리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 기술, 자본, 사업환경, 시장규모 등 모든면에서 그들은 우리를 압도한다. 필자는 자주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 또는 준비중인 분들에게 확실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실리콘밸리로 진출하라고 권한다. 많이 진출해서 성공하고 또 고국으로 되돌아 와서 그 경험을 전수해 줄 때 우리의 벤처산업은 더욱 성숙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관련협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중인것으로 알고있지만 특히 대만의 경우를 잘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유학생들은 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만의 유학생들은 돈이 되는 아이템을 공부하고 또 학위 중간이라도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한다.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서는 본국으로 돌아가 성공한 자금으로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취직을 한다. 대만이 자랑하는 신죽과학공업단지의 인력중 40%정도가 해외출신이라고 한다. 그들은 실리콘밸리와 기술,자금,인력,시장 측면에서 파이프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대만은 전세계 PC주기관시장의 60%, 모니터시장의 54%, 노트북PC시장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일본과 한국의 중앙집중식, 대기업 위주의 정책 대신에 한두가지 분야에만 주력하는 벤처기업으로 우리와 같은 위기를 벗어난 것이다.

얼마전 미국에서는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은 학업도중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중간정도 하는 학생은 졸업후 스톡옵션을 받고 벤처기업에 입사하고, 성적이 제일 낮은 학생이 대기업에 입사한다고 하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 정책적 요소외에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 즉 자부심을 가지고 창업 또는 벤처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 결국은 많은 성공사례가 이런 분위기 정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요즘 이런 창업 분위기는 어느정도 확산이 되어가고 있으며 고급 인력들의 벤처기업에 대한 유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제 방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구조조정의 영향도 있지만 능력있는 많은 분들이 대기업 연구소 또는 국책 연구소에서 스피노프(Spin-off)하거나 독자적으로 창업을 해나오고 있으며 대학내에서도 벤처동아리를 중심으로 벤처관련 마인드는 상당부분 확산이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분위기가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의 뒷받침 및 정부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언땅에 씨뿌리는 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리콘 벨리나 대만의 성공에서 보듯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내부에 모두 보유하지 못한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외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벤처기업의 실패는 국가적입장에서 손실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에서라도 한번의 사업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이란?

벤처캐피탈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NVCA(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은 Patient risk equity capital invested in innovative and/or rapidly expanding enterprise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혁신적이거나 급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되는 인내력있는 자본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의 역할에 대해서는 A venture capitalist provides much needed risk equity capital along and management expertise necessary to fuel the rapid growth of entrepreneurial ventures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자본을 투자하고 회사의 성장을 위한 경영측면에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그 역할인 것이다. 사실 미국과 같이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일반 은행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런 고수익을 낼수 있는 벤처캐피탈이 활성화 되어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낮더라도 실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벤처산업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실리콘벨리 지역의 벤처캐피탈 투자수익율은 연25%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벤처산업에서 실제 투자자가 투자매력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식시장도 장이 안좋을 때는 투자자들이 떠나듯이 벤처기업 입장에서 투자자가 수익을 낼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수익을 낼수 없는 산업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벤처산업에서 수익을 창출해 내고 또 그로인해 자금이 모이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때 벤처산업의 발전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어려운 사업환경과 국내의 고금리 구조는 벤처캐피탈이 고수익을 내기에는 열악한 환경인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구조조정기 하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대만의 경우는 80년대 초부터 벤처캐피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소득세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투자

자 육성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왔듯이 벤처캐피탈의 육성없는 벤처기업 활성화는 요원한 것이다. 벤처캐피탈을 인프라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자금도 필요하지만 벤처캐피탈을 통한 지속적인 벤처기업지원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종종 개인적으로 벤처캐피탈의 역할에 대해 칭찬보다는 비판을 받을 때가 많다. 벤처캐피탈 스스로 역할을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 규모를 가지는 외국 벤처캐피탈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벤처캐피탈이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다. 자금규모가 작다보니 장기투자는 어려워지고 소극적인 투자로 흐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부분의 문제 해결도 기본적으로는 벤처산업의 선순환을 통한 확대성장 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든 적당히 회사를 포장하여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해서는 않될 것이다. 부족한 자본으로 잘못된 투자가 일어날 때, 그것으로 인해 실제투자가 필요한 기업이 못받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은 배가될 것이며 그 손실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벤처캐피탈 업무를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는 크게 두부류로 나눌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어 투자업무를 주로하는 약50여개사 정도인 창업투자회사(자본금 100-300억원 규모)와 주무부처가 과학기술부로 용자업무위주의 신기술금융회사(현재 4개사)가 있다. 그외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도 투자업무를 할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들도 있다.

맺음말

벤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벤처산업이 스스

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은 우리 사회가 새롭게 요구하는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변화없는 벤처산업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은 좋은 투자업체를 찾기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마찬가지로 벤처기업들도 자기의 가치를 잘 알아주고 사업의 동반자로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투자자를 찾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국내 각 창투자들도 나름대로의 투자분야를 가지고 있고 각사별로 심사하는 포인트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모기업과 연관된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므로 각 창업투자회사의 모기업을 파악해 보거나 직접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벤처기업의 원천기술력 및 벤처캐피탈의 자금력은 약하고 국내시장은 작다. 벤처산업이 발전하기에 좋은 조건이 없는게 사실 우리의 실정이다. 그러나 대안은 있다고 생각된다. 벤처산업에서 성공한 여타 나라도 결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과 투자자의 신뢰 구축문제는 먼저 투명하게 경영하고 창출된 이익을 주주와 공유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투자자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사가치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여전히 좋은 인력과 상품화 가능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자존심이 강하며 과감성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인력들이 벤처산업으로 모이고 있음을 볼때 서둘지 말고(미국의 실리콘밸리도 1950-60년대 조성되었음) 꾸준히 인재를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벤처산업의 미래는 밝아올 것으로 확신한다. ◆